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다같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기해년 (己亥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73장(통일찬송가 73장)「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119장「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 도 가족 중에서 다같이

말씀나눔 누가복음 10:25~37(신약 p.110~111) 인도자
“새해, 복 많이 되세요!”

축복과 비전나눔 온 가족이 다함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새해 비전을 말하고
집안 어른들은 그 비전들을 듣고 기도해줍니다)

찬 송 85장(통일찬송가 85장)「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179장「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마 침 주기도문 다같이

“새해, 복 많이 되세요!”(누가복음 10:25~37)

새해는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 해’로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미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우리의 존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 2:9)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또 한 해라는 시간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며 달음질해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한 해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영생을 거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위협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 숭고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절) 질문 속에 오류가 숨어 있음을 예수님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한한 인간이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 때문에 구원에 대해 몽학선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신분, 행동, 소유, 능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요 3:15).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목숨을 담보로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27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없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하늘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를 넘어 “복 많이 되세요!”라고 해야합니다.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가정과 일터, 사회와 민족을 향해 나누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생을 거저 받은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7절).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28절)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29절)라고 반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율법교사는 여전히 철저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주어는 오직 자신입니다. 자신이 옳아야 하고, 자신이 정한 이웃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전해주시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못한 족속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당시 흔한 강도질에 희생된 사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도만난 사람을 외면했다고 해도 이들을 향한 존경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 사명을 위해 강도만난 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강도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나눔으로 죽음을 앞에 둔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

느냐?”(36절) ‘사마리아’란 단어조차 입으로 거론하는 것을 싫어하는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회피하며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불러 세워, 의롭다고 하심으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롬 8:29~30).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천국에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황금 돼지를 꿈꾸는 올 해에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복을 나눔으로 나로 인해 복이 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으로 나누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부터 나눔으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나 중심의 나눔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나누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나눔, 은사나눔, 사명나눔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눔의 역사가 펼쳐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되세요!”